대관령과 십자가는 넘으라고 있다

(역대하 15:1~19)

1.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2.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3.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 되었으나
4.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5. 그 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6.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7.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대관령과 십자가는 넘으라고 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대관령과 십자가는 넘으라고 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통하여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서울 -7도, 춘천 -12도, 청주 -8도, 대구 -7도, 광주 -4도, 부산 -1도였습니다. 서울에서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대관령까지 오는 길에 있는 강원도에 속한 원주가 -11도였고, 횡성과 평창은 영하 -14도였습니다. 이제 평창에 속한 횡계를 지나면 곧바로 대관령인데 대관령 넘어 강릉은 -2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강릉도 강원도이기 때문에 겨울에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제나 부산 다음 정도로 따뜻합니다. 그 이유는 불과 해발 832m 밖에 안 되는 대관령 고개가 동과 서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자동차도로를 832m 꼭대기까지 수평으로 만들어 놓아서 옛날처럼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관령이 강릉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완전히 다른 기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대관령과 같은 고개입니다. 고개는 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832m에 불과한 고개가 양쪽 세계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를 고개 삼아 넘는다면 어느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들어 낼까요?
수십 년간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이쪽 세상과 너머 세상의 그 엄청난 차이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날마다 우리 마음이 십자가 고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고개를 넘지 않는 세상과 넘은 후의 세상의 차이를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개를 넘지 못한 세상은 내 가족과 직장 모든 인간관계와 나라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내 몸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십자가 고개를 넘으면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또한 마음이 십자가 고개를 넘어갈 때에 이 몸이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장에서 있었던 아사 왕의 1차 종교개혁에 이어서 오늘은 2차 종교개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1차 종교개혁에서 이방에서 들여온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평안의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세상은 평안을 추구할 뿐이지 평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없으니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옛날 아사 왕 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여 부자 되고 건강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돈이나 건강과 형통을 좋아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좋아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고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의 고개가 우리에게는 십자가 고개입니다.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을 정도로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았던 내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번제단 고개 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서 붙잡았던 것들을 다 놓아야만 했는데,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붙잡은 마음 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번제단이라는 고개를 넘으면 평안의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번제단 고개를 넘어가 평안하게 되면 세상에 남아있는 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본문에서는 구스 사람 세라가 백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마음으로는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몸이 있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맞이하여 전쟁을 치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 유다는 구스에 이어 블레셋 지경에 속한 그랄의 이방

성읍들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승을 하며 4년간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연전연승 끝에 얻은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자 모든 남 유다 백성이 나와 군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라는 예언을 합니다.

지금 아사 왕과 그 군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번제단 십자가 고개를 넘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개 너머의 평안의 세상을 맛보는 동안에 몸이 남아있던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백만 대군을 무찔렀고, 블레셋 지경의 성읍들과의 전쟁에서도 연전연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라는 다소 뜬금없는 예언을 했던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어서 3절에서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과거형은 과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민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합하여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사기 때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신이 없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선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사랴의 생각을 빌어서 말하자면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고개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개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들이 이 번제단을 넘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우상을 타파해야만 했습니다. 우상은 마음속에서 이 세상 가치를 붙들었을 때에 동원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타파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대해 내 마음이 번제단에서 죽었다는 것이고 이는 곧 마음이 번제단의 고개를 넘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는 추구할 뿐이었던 평안을 직접 누리고 몸이 남아있던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연전연승을 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형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승리의 전리품들을 마음에 담게 되자 또 다시 우상숭배를 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전리품을 지키며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 가치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것입니다. 지키고 보존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늘리고 싶어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사랴 선지자가 경고한 것입니다.
4년 동안의 전쟁의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전리품들을 마음에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확장하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번제단 고개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버리

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풍요로움에 취해서 이들을 번제단 고개로 이끌 자가 없어졌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아사는 제2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제1의 종교개혁이 풍요와 다산을 갖고 싶어 하던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인 것이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통해 얻어진 전리품으로 인한 풍요로움을 붙잡은 마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은 새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남 유다의 백성들은 1차 종교개혁으로 마음이 고개를 넘어 하나님께 보내어 평안을 얻게 되고, 몸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제2의 개혁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통해 주어진 것들을 끌어안고 싶어 하는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차 종교개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은 승리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2차 종교개혁을 위한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여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물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 모든 성취물을 버리기 위해 또 다시 번제단의 고개를 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차 종교개혁 이전의 상태가 되면서 평안이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의 중심에 있어야 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법의 사각지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포폰을 쓰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한 증거들까지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마음이 십자가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가족이나 교회나 나라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고개를 넘어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몸이 머무는 세상에서도 평안과 승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의 승리에 안주하고 그 결과물에 달라붙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주신 이유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승리의 결과물은 또 다시 십자가 번제단에서 떼어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과물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1차 종교개혁의 결과로 승리와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주어지자 남 유다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을 시작으로 또 날마다 번제단의 십자가 고개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진 삶에서 마음을 뗌으로서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는데 고개를 넘어 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도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대한 사랑은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이삭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존재 이유조차도 사라지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들마저도 버렸던 것입니다.
내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며 사업과 재산과 건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이들을 아깝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1차 종교개혁을 통하여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럴 때에 평안보다는 불화가 더 많았던 가족 사이에서도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평안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일들이 잘 되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탐스럽고 귀한 결과물들을 주실 것이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또 다시 십자가에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주실지라도 내 마음은 오로지 십자가 고개를 넘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위한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 축복을 꽉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사 왕의 마음이 그러했다면 2차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아사랴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전리품 중에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번제를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참여하여 풍요로움에 매인 마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번제단의 십자가 고개를 넘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것이고 바로 2차 종교개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복을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을 십자가 고개 너머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알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들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대관령과 십자가는 넘어가기 위해 서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육체가 거하고 있는 삶에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의 재료로 삼기 위해 십자가 고개를 넘어감으로 하나님만으로 느끼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